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에 따른 군(群)과 청소년의 적응 - 정서조절방식과 탄력성을 중심으로 -

오 지 현¹⁾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홍 정 희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유형 변인을 군집분석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을 새롭게 탐색해보고자 하였으며, 분류된 양육행동 군과 청소년 자녀의 적응(정서조절방식, 탄력성)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발달적 변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이 많으며 이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강조되는 시기인 중학교 1, 2, 3학년 남, 여학생들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군집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군집은 3개 군집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집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군집 1은 ‘과잉-혼란’ 집단으로, 군집 2는 ‘무관심-강압’ 집단으로, 군집 3은 ‘안정-애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적 정서조절방식과 탄력성의 차이는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능동적 정서조절방식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방식에 있어서는 군집 1과 군집 3이 군집 2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탄력성의 하위요인과 총점에 있어서는 모두 군집 3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군집 1, 군집 2 순서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도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가 적응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집에 대한 다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청소년의 적응적 정서조절방식, 탄력성과의 관련성도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집분석, 정서조절방식, 탄력성

1) 교신저자 :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E-mail : ojh@chosun.ac.kr)

2)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 수료, 서울신경정신과 심리치료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이 성인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최초로 경험하는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서로 다른 발달적 과업과 적응이 요구된다.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위험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스트레스 증가와 부적응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 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권은영, 정현희, 2011; 이희정, 조윤주, 2010), 아동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적응의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는 충동적이고 반항적이며 통제가 어렵다는 뜻으로 ‘중2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신이 주신 두 번째 양육의 시기’,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시기의 양육과 긍정적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국민일보, 2014; 안재희, 김민정, 나현태, 서은주, 서재권, 2014). 이는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게 될 불안감과 혼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전 시기보다 소원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정도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며, 부모

의 지지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 바 있다(김재엽, 정윤경, 2007; 박나래, 정익중, 2012; 송희원, 최성열, 2012; Diamond & Aspinwall, 2003; Kobak, Cole, Fleming, Ferenz-Gillies, & Gamble, 1993).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건전한 태도와 행동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며(이정윤, 최수미, 2011),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권용준, 김영희, 2011; 김영춘, 정민숙, 2012;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요컨대, 어머니는 개입, 지도, 지지, 도움, 통제 등 다양한 유형의 양육행동을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 자녀에게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성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와 규칙을 습득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들(김영춘, 정민숙, 2012; 박나래, 정익중, 2012;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송희원, 최성열, 2012;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임성옥, 박민정, 2011; 임정화, 정종설, 2012)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양육행동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거나, 양육행동을 긍정적-부정적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행동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사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성향만이 높은 어머니가 있는 반면 어떤 어머니는 온정적이기도 하지

만 통제 및 처벌 또한 빈번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양육행동 하위유형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상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유형 변인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단일 변인 중심으로 현상을 이해하려 할 때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변인들의 조합으로 인해 고유한 영향이 가려질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군집유형을 탐색해 본 연구(조유진, 오지현, 2011)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유형을 살펴본 선행연구(조유진, 2012)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높고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낮은 집단,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높은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집유형을 탐색해보고자 하며, 군(群)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적응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비행 및 문제행동(고정자, 2005; 김재엽, 정윤경, 2007; 나유미, 임연진, 2003; 박진경, 도현심, 2001; 이진솔, 2007; Diamond & Aspinwall, 2003; Kobak et al., 1993) 또는 우울, 불안 등(김혜영, 2000; 손석한 외, 2001; 허유정, 2002)과 같은

부적응 특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가 부정적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고 긍정적 양육행동은 많이 보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밝혀져 왔다.

그러나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을 적게 보이는 결과 청소년의 부적응이나 이탈을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부적응 결과의 감소 뿐 아니라 긍정적 발달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적절한 양육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 및 적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청소년이 사회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주요한 관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 하위유형에 따른 ‘군’과 청소년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정서조절방식과 탄력성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초기 청소년기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한 변인으로 적응적 정서조절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서조절은 정서 상태를 바꾸거나 유지하기 위한 반사적인 반응이나 개인 내적의 혹은 대인관계에서의 전략으로(Thompson, 1998),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는 적응적 기제를 뜻한다. 청소년기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정서적 격렬함 또는 동요이기에, 정서조절의 문제는 긍정적 발달 및 사회

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외현화 행동문제가 증가하게 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독립이 이루어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조절능력이 발달 중이기 때문이다(Steinberg, 2007). 또한, 청소년기는 신체 변화 및 심리적 동요 등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혼란스러운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리·사회적 부적응 경험을 동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비행, 학교 폭력, 가출 등의 대표적 부적응 문제 기저에는 역기능적 정서조절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김광수, 2003; 서지영, 최정윤, 2000; 신미영, 김재환, 2001;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다시 말해, 청소년의 부적응 및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응적 정서조절방식을 습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증진하기 위한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오지현, 2010).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는 회피적인 조절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능동적 조절방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정, 2003; 성선헌, 2006).

이와 더불어 초기 청소년기의 적응 요인으로 탄력성(resilience)을 꼽을 수 있는데, 탄력성이란 한 개인이 의미 있는 불행한 사건과 역경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Cicchetti & Garmezy, 1993; Luthar, 1991). 또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개인이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자신의 생활에서 새로운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탄력성의 개념은(Schoon, 2006)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는 초기 청소년의 적응 과정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변인으로 여겨진다(주소영, 이양희, 2011).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양육행동 군 유형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심리상담이나 부모교육에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으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행동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군’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에 따라 적응(정서조절방식, 탄력성)은 차이를 보이는가?

2-1.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적 정서조절방식은 차이를 보이는가?

2-2.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에 따라 청소년의 탄력성은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발달적 변화로 인한 부정적

정서경험이 많으며 이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강조되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초기 청소년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 행동평가를 위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초기 시점이 만 11~12세로(Achenbach, 1991), 우리나라 연령대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또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는 분노조절 및 공격적 일탈 문제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고(문용린, 200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심리 행동 특성 및 학업 등의 여러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밝힌 연구결과(김의철, 박영신, 2008)를 고려하여 중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학교 5곳에서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총 55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53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질문지에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06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허묘연(200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방치, 학대, 애정 등의 8 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유진(2005)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기초로 9개 문항을 제외한 후 사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총 3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각 요인 별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 유형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독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합리적 설명은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비밀관성의 경우는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다’와 같은 문항들이 있고 과잉기대는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과잉 간섭의 경우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다’, 학대는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 방치는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셨다’, 마지막으로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506)

	구분	n (%)
성별	남	244(48.2)
	여	261(51.6)
학년	중학교 1학년	174(34.4)
	중학교 2학년	164(32.4)
	중학교 3학년	167(33.0)
가족 관계	부모 모두 계신다	494(97.6)
	어머니만 계신다	12(2.4)
어머니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이하	14(2.8)
	고등학교졸업이하	322(63.6)
	전문대 졸업	20(4.0)
	대학교 졸업이상	150(29.6)
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79(15.6)
	40 ~ 50세 미만	381(75.3)
	50세 이상	46(9.1)

애정은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 하셨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정서조절방식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정서조절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윤석빈(1999)이 개발하고 임전옥(2003)이 타당화를 실시하여 보완한 정서조절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25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능동추구 방식, 지지추구 방식, 회피/분산적 방식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2005)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전옥(2003)의 연구와 동일한 요인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적응적 조절방식 유형인 능동추구 방식과 지지추구방식 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만을 활용하였다. 정서조절방식 문항은 응답자가 부정적 정서를 느낄 때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적절한 번호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정서조절 방식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능동추구 방식의 경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지지추구 방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이나 조언을 구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의 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소영과 이양희(2011)가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Resilience

Scale for Adolescents: RSA)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는 27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점수와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탄력성(resilience)이란 한 개인이 의미 있는 불행한 사건과 역경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특히, 환경적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에 청소년 개개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대처하며 자신의 생활에서 새로운 적응을 해 나가는 사회적 능

표 2. 각 척도 별 하위영역과 문항수, 신뢰도

변인 구분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
양육 행동	감독	3	.67
	합리적 설명	3	.72
	비밀관성	3	.54
	과잉기대	4	.78
	과잉간섭	4	.71
	학대	6	.88
	방치	5	.79
	애정	6	.84
정서 조절 방식	능동적 방식	8	.83
	지지추구적 방식	8	.85
탄력성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11	.85
	문제해결능력	6	.79
	부정적 감정의 인내	6	.80
	학업적 유능감	4	.65
	총점	27	.92

력으로 정의된다(주소영, 이양희, 2011).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여겨 본 척도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그 일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해 낼 만큼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나는 속상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등과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의 설문지 배부는 각 학교 교사에게 개별연락을 통해 동의를 구한 뒤, 학교에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교사와 연구대상자들에게 질문지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질문지를 보내고 전화로 교사에게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배포된 질문지는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공통적인 특성들을 기초로 사람

들이 어떻게 자연발생적이고 동질적인 하위집단으로 묶이는지를 보여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유형(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에 근거하여 하위집단들을 조합하여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양육행동 유형을 변인중심이 아닌 패턴중심으로 분류하고, 독특한 유형을 이루는 각 집단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적응과의 관련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s 방법과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방법을 연이어 실시하는 방식으로 위계적 군집 방법만을 사용할 때 이 탈정도가 큰 사례들이 군집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 양육행동 유형 군집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유형에 근거하여 하위집단들을 조합하는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행동의 하위 유형인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 방치, 학대 변인의 표준점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군집분석(wards method, squared euclidean distances)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agglomeration schedule)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3개 군집이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도 가장 적절하였다.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

의 각 군집별 평균점수를 초기 중심점으로 투입하여 2단계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군집 1은 145명, 군집 2는 104명, 군집 3은 256명으로 구성되었다. 군집 특성을 파악하여 군집 명을 정하기 위하여 군집 변수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각 하위변인들의 표준점수에 근거한 각 군집의 패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군집 1은 애정을 제외한 양육태도 특성들이 모두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 학대, 방치와 같은 특성들이 두

표 3. 최종 군집별 중심점

변인	군집 1(N = 145)	군집 2(N = 104)	군집 3(N = 256)
	‘과잉-혼란’ 집단	‘무관심-강압’ 집단	‘안정-애정’ 집단
감독	.14	-1.07	.36
합리적 설명	.06	-1.16	.44
비일관성	.74	.44	-.59
과잉기대	.72	.14	-.46
과잉간섭	.83	.32	-.59
학대	.75	.59	-.66
방치	.61	.77	-.66
애정	-.06	-1.10	.50

주. 군집변인은 표준화된 점수임($M = 0$, $SD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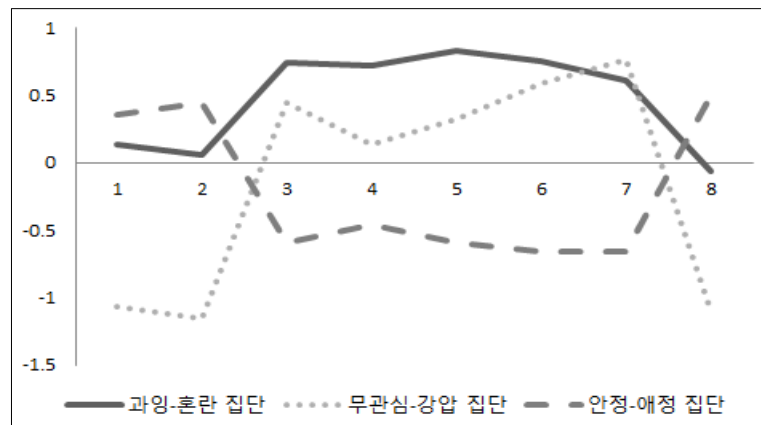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주. 1=감독, 2=합리적 설명, 3=비일관성, 4=과잉기대, 5=과잉간섭, 6=학대, 7=방치, 8=애정.

드러지게 높은 부모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 수준을 갖고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방치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며 이러한 양육행동들이 비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과잉적이거나 강압적이고 또는 무관심한 태도가 상황에 따라,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져 ‘과잉-혼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군집 2는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적 양육태도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인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는 모두 평균보다 높다. 특히, 감독 및 합리적 설명과 애정은 두드러지게 낮고 방치는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방치하며, 훈육을 위한 격려나 훈계가 부족하고 폭력을 가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무관심-강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이 평균보다 높고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는 평균보다 낮다. 즉, 일관적이고 애정적이며 학대, 방치 없고 과잉간섭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자녀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친밀감을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 ‘안정-애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과 청소년의 적응

다음으로는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각 집단들이 청소년의 적응(정서조절방식, 탄력성)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 과 청소년의 적응적 정서조절방식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군집에 따라 능동적 정서조절방식($F = 10.44, p < .001$), 지지추구적 정서조절방식($F = 21.00,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는 것

표 4. 군집별 청소년의 정서조절방식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M(SD)$	F	Scheffé
능동적 방식	군집1 ($n = 145$)	24.10(5.25)	10.44***	3=1>2
	군집2 ($n = 104$)	21.42(5.34)		
	군집3 ($n = 256$)	24.23(5.70)		
지지추구적 방식	군집1 ($n = 145$)	26.00(6.06)	21.00***	3=1>2
	군집2 ($n = 104$)	22.57(6.46)		
	군집3 ($n = 256$)	27.17(5.99)		

주. 1=과잉-혼란 집단, 2=무관심-강압 집단, 3=안정-애정 집단.

*** $p < .001$.

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들이 적응적 정서조절방식에 있어 각각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능동적 정서조절방식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방식에 있어서 군집 3과 군집 1이 군집 2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균’ 과 청소년의 탄력성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군집에 따라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F = 44.44, p < .001$), 문제해결능력($F = 33.10, p < .001$), 부정적 감

정의 인내($F = 22.10, p < .001$), 학업적 유능감($F = 17.38, p < .001$), 탄력성 총점($F = 41.74, p < .001$)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 유형에 따른 세 집단이 청소년의 탄력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 해결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 탄력성 총점에서 군집 3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군집 1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군집 2가 가장 낮았다.

표 5. 군집별 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M(SD)$	F	Scheffé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군집1 ($n = 145$)	35.79(6.32)	44.44***	3>1>2
	군집2 ($n = 104$)	33.01(6.86)		
	군집3 ($n = 256$)	39.68(6.34)		
문제 해결 능력	군집1 ($n = 145$)	19.17(3.25)	33.10***	3>1>2
	군집2 ($n = 104$)	17.06(3.92)		
	군집3 ($n = 256$)	20.45(3.67)		
부정적 감정의 인내	군집1 ($n = 145$)	18.91(3.66)	22.10***	3>1>2
	군집2 ($n = 104$)	16.51(4.22)		
	군집3 ($n = 256$)	20.58(4.04)		
학업적 유능감	군집1 ($n = 145$)	12.52(2.60)	17.38***	3>1>2
	군집2 ($n = 104$)	11.61(2.65)		
	군집3 ($n = 256$)	13.39(2.73)		
탄력성 총점	군집1 ($n = 145$)	86.41(13.68)	41.74***	3>1>2
	군집2 ($n = 104$)	78.19(14.59)		
	군집3 ($n = 256$)	93.11(14.51)		

주. 1=과잉-혼란 집단, 2=무관심-강압 집단, 3=안정-애정 집단.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1. 어머니 양육행동 '군' 유형

어머니 양육행동의 하위유형을 조합하는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독특한 집단유형을 발견하였다. 3개의 군집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8개의 하위 특성 조합에서 각기 다른 차별화된 형태를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 1은 '과잉-혼란' 집단, 군집 2는 '무관심-강압' 집단, 군집 3은 '안정-애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군집 1인 '과잉-혼란' 집단은 애정을 제외한 양육태도 특성들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특히 과잉간섭 및 과잉기대 그리고 학대와 방치, 비밀관성의 측면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잉적이거나 강압적이고 또는 무관심한 태도가 상황에 따라, 어머니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어머니의 이러한 특징으로 청소년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진정으로 지지 또는 공감 받고 있다고 느끼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군집 2인 '무관심-강압' 집단은 어머니가 자녀를 방치하며, 훈육을 위한 격려나 훈계가 부족하고 폭력을 가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 즉,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비난을 많이 하는 집단으로 분류된다. 군집 2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군집 1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군집 2의 경우 감독 및 합리적 설명과 애정이 가장 낮으며 방치는 가장 높다는 특징이 차이점이다. 즉, 자녀는 관심은 받지 못한 채, 어머니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위축되어

있거나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빈번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군집 3인 '안정-애정' 집단은 긍정적 양육행동의 특징이 모두 높고 부정적 양육행동의 특징은 모두 낮은 집단으로 일관적이며 안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학대와 방치가 없으며 과잉간섭하지 않고 일관성과 애정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자녀는 어머니의 일관적인 태도를 안정적으로 여기며 친밀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태도 척도의 8개 하위변인으로 군집화한 3개의 양육태도 군집에 대한 대표성을 단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양육행동의 하위유형을 단일적으로 살펴본 연구들과 달리 변인들의 조합으로 패턴화 시켰을 때 독특한 특성을 발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가장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안정-애정 집단, 비밀관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과잉-혼란 집단, 방치는 높고 애정은 부족한 점이 특징적인 무관심-강압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 어머니 양육행동 '군'과 청소년의 적응적 정서조절방식, 탄력성 간 관계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각 집단에 청소년의 적응적 정서조절방식, 탄력성 간에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군집에 따른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의 적응적 정서조절방식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능동적 조절방식과 지

지추구적 조절방식에 있어서 안정-애정 집단과 과잉-혼란집단이 무관심-강압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합리적인 설명과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높은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윤영신, 2007; 주동범, 2002)과 일치한다. 즉, 부모가 자녀를 지지하며 긍정적인 수용을 많이 하고, 심리통제를 적게 할수록 청소년 자녀는 높은 자기조절 능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운, 최수미, 2011). 부모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부정적 정서조절방식과 부적 상관이 보고된 것(Gomez & McLaren, 2006)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단, 과잉-혼란 집단과 안정-애정 집단에서 청소년의 능동적,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방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많을수록 자아통제력이 높아지고(정소희, 2007), 통제와 과잉보호, 방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혜영, 2000; 문경주, 오경자, 2002; 신민진, 하은혜, 2010; Garber, Robinson, & Valentiner, 1997)는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탐색적인 단계의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유사한 맥락의 연구결과들로 추론해 보고자 한다. 과잉-혼란 집단의 경우, 과잉반응을 보이거나 훈육 및 지도를 하면서도 강압적이고 또는 무관심한 태도가 상황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경험과 유사한 관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즉, 부모의 학대는 자녀에게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문제 중에 학대받는 아이는 그들의 부모가 학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있다(이정숙, 김은경, 2007). 아동의 관점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심하게 비난하는 부모의 태도는 종종 관계형성의 방식이자 애정의 표현으로 지각되는데 이것이 학대받는 아동이 직면하는 역설적 딜레마라고 강조하는(Wekerle & Wolfe, 1996)관점에 근거해 볼 때, 과잉-혼란 집단 청소년들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정서, 행동 양상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즉, 과잉-혼란 집단에서 부정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경험한 자녀들일지라도 사고 패턴에 따라 적응적인 조절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추측이다. 또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 중 많은 수가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연구결과(Malinovsky-Rummell & Hansen, 1993)를 고려해볼 때,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모두 부정적인 정서조절 방식을 보이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한 적응이 역전된 부모-자녀 관계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욕구표현의 결과라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적 적응이 아니라 피상적인 적응적 행동의 표출일 수도 있기에(이정숙, 김은경, 2007), 실제 건강한 적응적 능력인지에 대한 평가는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선 과잉-혼란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방식을 매개 또는 조절하는 인지적 변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청소년 자녀가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검증이 추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과잉-혼란 집단과 무관심-강압 집단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의 정서조절방식에 따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관심-강압 집단과 과잉-혼란 집단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감독 및 합리적 설명, 애정, 그리고 방치 요인이다. 즉, 무관심-강압 집단의 경우엔 훈육과 애정과 관련한 행동이 가장 적게 나타나며 방치는 가장 많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감독이 자기통제감을 증진시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끼치며(고정자, 2005; Gottfredson & Hirschi, 1990), 어머니의 감독과 애정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고 방치를 경험할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졌다고 보고한 결과(김빛나, 진미경, 2014)를 고려하여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즉, 두 집단 모두 부정적 양육행동 특성이 높지만 무관심-강압 집단의 경우 적응적 정서조절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독과 애정 요인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으며, 부적응적 정서조절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치 요인이 가장 높다는 점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무관심-강압집단이 청소년 자녀의 적응적 정서조절 방식에 있어서 세 집단 중 가장 낮고, 그 중 과잉-혼란집단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난 이유는 어머니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이 낮고 방치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는 점으로 인해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측하는 바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과잉-혼란 집단의 특성에 대한 추후 연구를 통한 검증이 요구되기에

이에 대한 해석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탄력성 하위요인과 총점 모두 안정-애정 집단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고, 다음으로 과잉-혼란 집단, 무관심-강압 집단의 순으로 평균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탄력성과 관련 있는 변인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 혹은 친밀한 어른과의 관계(송희영, 남경아, 임지영, 2006; 이은미, 박은전, 2002; Masten, Best, & Garmezy, 1990)임이 보고됐던 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탄력성의 밀접한 관련성은 본 연구결과에서 또한 재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정-애정 집단이 가장 높은 탄력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모가 애정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자녀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태도가 자녀의 적응을 돕고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들(김경민, 2010; 김미예, 박완주, 2008; 김영민, 임영식, 2012; 장경문, 2003; 임성옥, 박민정, 2011)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한편, 과잉-혼란 집단은 안정-애정 집단보다는 낮지만 무관심-강압 집단보다는 높은 탄력성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의 차이점은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방치 요인인데 어머니의 도움을 지지자원으로 지각하여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송희영 외, 2006)는 보고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탄력성이 청소년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으로부터의 자립심과 스스로 해결해보려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청소년의 특성상 갈등상황이나 문제 해결 시 어머니의 감독이나 합리적 설명이 청

소년 자녀의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이것이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되는 바이다. 하지만 앞서 정서조절방식과 관련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란-과민 집단의 하위유형별 특성을 고려해볼 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함께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점이 청소년 자녀의 탄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컨대, 본 연구를 통해 3개의 군집으로 새롭게 형성된 어머니의 양육행동 패턴은 청소년 자녀의 정서조절방식과 탄력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군집에 대한 다면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고 청소년의 정서조절, 탄력성과의 관련성도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청소년 시기에도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가 적응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특히, 군집분석 결과인 양육행동 패턴 각각의 특징들은 부모교육 및 상담에서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 발달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양육행동을 지도하고 청소년 상담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면밀한 탐색을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구할 수 있었다.

상기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파악한 군집분석이 표본의 특성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탐색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추후 확인적 분석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 집

단이 타당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군집 별 특성과 군에 따른 청소년 개인적 특성 변인들과의 해석과 관련해 좀 더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양육행동과의 상호작용 효과 또는 매개 효과 분석을 실행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보고에 기초하고 있기에 부모 모두의 양육행동을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존재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고,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행동의 지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추가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 양육행동을 각각 비교하는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임전옥(2003)이 타당화한 청소년의 정서조절방식 척도를 활용하였고 세 가지 하위요인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만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점을 간과하고 연구를 진행한 점 또한 제한점으로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고정자 (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 국민일보 (2014.3.4). 15세 청소년들이 겪는 ‘중

- 2병' 해부...EBS '다큐프라임-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8098849&cp=du>에서 2014년 3월 4일 인출.
- 권용준, 김영희 (2011). 가족기능과 청소년의 자아조절이 게임 과몰입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6), 99-121.
- 권은영, 정현희 (201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6), 29-54.
- 김광수 (2003). 청소년의 분노 수준, 분노 대처 방식과 학교생활 적응. *교육심리학연구*, 17(3), 393-410.
- 김경민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문화포럼*, 25, 40-74.
- 김미예, 박완주 (2008). 결손가정아동의 자아탄력성과 부적응 행동 변화에 미치는 문학치료 중재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20(2), 143-156.
- 김민정 (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빛나, 진미경 (2014).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3), 329-344.
- 김영민, 임영식 (2012).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2), 273-299.
- 김영춘, 정민숙 (2012). 부모양육태도,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3, 51-70.
- 김의철, 박영신 (2008). 한국 사회와 교육적 성취(1): 교육의 현실,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발전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S), 1-31.
- 김재엽, 정윤경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5), 169-197.
- 김혜영 (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나유미, 임연진 (2003).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용린 (2008). 학교폭력 사태 및 대처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 안전대책 세미나 자료집: 학교폭력 10대 트렌드*, 3-12.
- 박나래, 정익중 (2012). 방임, 과보호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7, 139-164.
- 박진경, 도현심 (2001). 어머니의 감독(monitoring) 및 감독 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서지영, 최정윤 (2000). 품행장애 청소년들의

- 특성분노와 분노반응양식 [포스터 발표 초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246-247.
- 성선훈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정서조절양식 및 또래 괴롭힘 경향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남녀 중학생의 정서적·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22.
- 송희영, 남경아, 임지영 (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영향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2(2), 244-252.
- 송희원, 최성열 (2012). 빈곤여부,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학업동기, 심리적 안녕감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6(3), 651-672.
- 신미영, 김재환 (2001). 내원 청소년의 분노 표현 양식에 따른 MMPI 반응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99-309.
- 신민진, 하은혜 (2010).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459-477.
-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이 지각한 통제적 양육행동과 공격성의 관계: 우울과 역기능적 충동성의 중다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347-366.
- 안재희 (기획), 김민정, 나현태, 서은주, 서재권 (연출) (2014). 교육혁명, 15세에 주목하라 [TV 다큐멘터리]. 서울: EBS TV.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오지현 (2010). 청소년의 특성분노,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및 분노표현방식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4), 53-68.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청소년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3), 161-180.
-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영신 (2007).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 관련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은미, 박은전 (2002).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7(1), 3-24.
- 이진솔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 김은경 (2007). 청소년의 학대경험이 수치심과 부모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39-356.
- 이정운, 최수미 (2011).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문제행동: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2), 635-650.

- 이희정, 조윤주 (2010). 학교적응의 중단적 변화와 예측 변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2), 253-278.
- 임성옥, 박민정 (2011). 부모의 양육태도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빈곤청소년과 일반청소년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0), 229-252.
- 임전옥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화, 정종철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이 남·여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8), 169-190.
- 장경문 (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143-161.
- 정소희 (2007).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분석: 비행친구와 학교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1), 145-170.
- 조유진 (2005).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유진 (2012).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군집과 아동의 개인내적 특성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16(2), 289-307.
- 조유진, 오지현 (2011). 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군집과 특성분노 및 분노대처방식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99-113.
- 주동범 (2002).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지각된 양육방식이 초기 청소년의 자기통제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23-43.
- 주소영, 이양희 (2011). 청소년용 탄력성 (Resilience)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18(4), 103-139.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1).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허유정 (2002). 청소년의 행동억제 기질과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이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Cicchetti, D., & Garmezy, N. (1993). Milestone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4), 497-783.
- Diamond, L. M., & Aspinwall, L. G. (2003). Emotion regulation across the life span: An integrative perspective emphasizing self-regulation, positive affect, and dyadic processes. *Motivation and Emotion*, 27, 125-156.
- Garber, J., Robinson, N. S., & Valentiner, D. P. (1997).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adolescent depression: Self-worth as a mediator.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2-33.
- Gomez, R., & McLaren, S. (2006). The association of avoidance coping style, and perceived

- mother and father support with anxiety/depression among late adolescent" Applicability of resiliency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165-1176.
- Gottfredson, M.,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obak, R., Cole, H., Fleming, W., Ferenz-Gillies, R., & Gamble, W. (1993). Attachment and emotion regulation during mother-teen problem-solving: A control theory analysis. *Child Development*, 64, 231-245.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3), 600-616.
- Malinosky-Rummell, R., & Hansen, D. J. (1993). Long-term consequence of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4, 68-79.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Schoon, I. (2006). *Risk and resilience: Adaptation in changing tim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Steinberg, L. (2007). Risk-taking in adolescence: New perspectives from brain and behavioral sci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 55-59.
- Thompson, R. A. (1998). Emotional compete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 *Psychological Inquiry*, 9(4), 308-309.
- Wekerle, C., & Wolfe, D. A. (1996). Child maltreatment. In E. J. Mash & R. A.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 (pp. 492-537). New York, NY: Guilford Press.

1 차원고접수 : 2014.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4. 11. 14.

최종게재결정 : 2014. 12. 04.

The Relationship between Cluster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the Adaptation of Adolescents: A Focus on Emotion Regulation Methods and Resilience

Oh, Ji hyun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Chosun University

Hong, Jung hee

Dep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patterns of parenting attitude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ified clusters of parenting attitude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cluster analysis and one-way ANOVAs. The results suggested three proper clust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Cluster 1 was categorized as 'confused-oversensitive', cluster 2 was categorized as 'neglected-coercive', and cluster 3 was categorized as 'stable-receptive'. Additionally, the differences between adolescent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in each cluster showed distinct points of interest. In terms of the active emotion regulation method and the support seeking emotion regulation method, clusters 1 and 3 appeared to be more significant than cluster 2, whereas cluster 3 showed the highest level in resilience, followed by cluster 1 and 2, respectively. This suggests that mothers' affirmative parenting attitudes are still important during adolescence for their child to grow and develop in an adaptive manner.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a deeper understanding on the operation of specific clusters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Keywords: parenting attitudes, cluster analysis,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methods, resilience